중동 긴장 고조에 국제유가 급등…기름값 ‘비상’

국내 동반 상승 불가피…운송업계·농가 부담 커져

정부, 비축유 방출 등 단계별 대응…리스크 최소화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국제유가가 급등 조짐을 보이면서 지역민들의 생활비 부담이 한층 가중될 전망이다.

국제 유가가 통상 2주 정도 시차를 두고 국내 기름값에 반영되는 만큼 이달 중순부터 주유소 가격이 본격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제기된다.

3일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광주지역 휘발유 평균 가격은 1708원으로, 지난달 2일 1671원에 비해 상승했다.

지난해 12월 2주차 1733원을 기록한 뒤 지난달 2주차 1668원까지 하락세를 이어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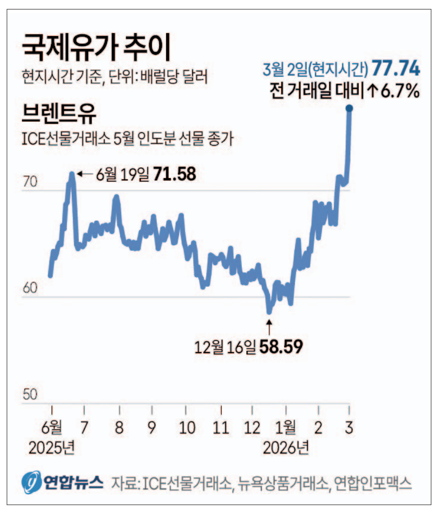
하지만 3주차(1670원)부터 상승세로 전환되며 4주차 1677원까지 올랐다.

경유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광주지역 경유 가격은 지난해 12월 1주차 1648.93원으로 최고점을 기록한 뒤 꾸준히 하락했다.

지난달 2주차(1563.68원)부터 상승세로 돌아서며 4주차 1582.54원까지 상승했다.

전남지역의 경우 지난해 12월 2주차 1751.86원으로 휘발유 가격이 고점을 기록한 뒤 하락세를 이어가다 지난달 3주차(1702.29원)부터 상승세로 전환했다.



지난달 12월 1667.93원을 기록한 경유도 하락세를 보이다 지난달 3주차 1599.03원, 4주차 1603.58원을 기록했다.

전국적으로도 2월 4주차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리터(ℓ)당 1691.3원으로 전주 대비 3.0원 상승했으며 경유는 1594.1원으로 6.5원 올랐다.

특히 최근 들어 경유 가격 상승폭은 휘발유보다 더 크게 나타나고 있어, 특히 운송업계와 농가에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과 군사적 긴장으로 중동지역 불안감이 고조되면서 기름값 상승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전 세계 원유 해상 수송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가 봉쇄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원유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는 더욱 고조되고 있다.

이에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주요 산유국들이 올해 초 중단했던 추가 증산을 재개를 발표했지만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이같이 국제유가 상승세와 정유사 공급가격 인상이 이어지면 광주·전남지역 기름값 상승도 불가피해 서민들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특히 농업 비중이 높은 지역 특성상 경유 가격 변동에 따라 체감도가 크기에 영농철을 앞둔 농가에도 부담 요인이 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농사를 짓고 있는 60대 A씨는 “최근 기름값이 계속 오르다 보니 주유소를 갈 때마다 부담이 느껴진다”며 “이번에도 가격이 오를까 봐 평소보다 일찍 기름을 채우러 나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사짓는 사람 입장에서는 경유값이 오르는 게 가장 크게 와 닿는다”며 “영농철을 앞두고 있는 만큼 기름값이 더 오르지 않고 안정됐으면 좋겠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한편, 정부는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해상물류 우회로 확보 등 에너지·원자재 공급망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또 국내 기름값 안정을 위해 비축유 방출을 포함한 단계별 대응책을 준비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통상 2주 가량의 반영 시차가 있는 만큼 이달 중순 이후 국내 기름값이 큰 폭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다”며 “최근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 수위는 이례적인 수준이다. 정부가 비상대책반을 가동한 가운데 정유사들도 유가 흐름과 유조선 운항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고 전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광주경총 “통합특별법 국회 통과 환영”

일자리 창출·투자 유치 등 지역 경제계 역할 강조

광주경영자총협회가 전남·광주 통합특별법 국회 통과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지역 경제계의 역할을 강조했다.

광주경영자총협회는 3일 “전남·광주 행정통합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7월 1일 정식 출범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와 산업 시너지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과 동시에 투자 유치, 일자리 창출, 초광역 경제권 형성을 주도하며 핵심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고 밝혔다.

특히 광주경총은 통합으로 인구 320만, GRDP 150조 규모의 ‘슈퍼 광역경제권’을 구축하게 돼 AI·모빌리티·에너지 기반 첨단 산업벨트 조성과 반도체 3축 글러스터(광주 R&D, 전남 서부 에너지 인프라, 동부 소부장)를 통해 기업 유치와 정부와 협상력을 강화를 강조했다.

물류비 절감과 1시간 생활권 구축으로 이어지면서 소득 증대와 서비스업 성장이 촉진될 것이라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 전남광주특별시(광주특별시) 출범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도 기대했다.

이밖에도 국책사업·공공기관 유치와 재정 자립도 향상을 통해 수도권 집중 완화와 호남권 성장 거점을 만들고 반도체·해상풍력 등 미래 먹거리 육성도 당부했다.

양진석 광주경총 회장은 “통합특별법 국회 통과 후 정치·경제계가 환영하며 공동 성장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며 “소지역주의 극복과 산업 구조 개편이 시급하며 교통·SOC 확충을 위한 경제계 협력이 필수다. 재정 인센티브와 권역별 산업분담(서부 에너지, 동부 반도체 등)이 성공의 열쇠다”고 말했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농어촌공사, 일본서 K-농기자재 수출 ‘포문’

박람회서 농식품부와 한국관 운영…수출 상담 등 성과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가 케이(K)-농기자재 수출 확대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달 25일부터 27일까지 열린 ‘2026 일본 니가타 농업박람회(AGRI EXPO NIIGATA 2026)’에서 한국관을 운영하고, 총 5657만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과 3만 달러 규모의 수출 업무협약 체결, 4건의 샘플 주문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3일 밝혔다.

‘일본 니가타 농업박람회’는 전 세계 농기자재 기업 200여개사와 현지 농가, 농업법인, 유통 관계자 등 1만2000여명이 참여하는 농업 전문 전시회다.

개최지인 니가타현은 일본 최대 쌀 생산지이자 스마트팜 도입이 활발한 곳으로, 일본 호쿠리쿠(북륙)와 도호쿠(동북) 지역 진출을 위한 거점으로 평가받는다.

농식품부와 공사는 이번 박람회에서 국내 농기자재 기업 14개사와 함께 한국관을 구성해 현지 바이어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양 기관은 실질적인 수출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사전 마케팅에 공을 들였다.

박람회 개최 전, 일본 대형 유통기업 및 농산업 바이어와 국내 참가기업을 연결해 수출 상담의 실효성을 높였고 공사가 운영하는 ‘농산업수출종합지원시스템’ 홈페이지와 박람회 공식 홈페이지에 온라인 홍보관(랜딩페이지)을 구축했다.

현지 바이어가 한국 제품 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상담을 예약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것이다.

이 같은 전략적 지원에 힘입어, 박람회장에서는 232건(5657만 달러)의 상담이 진행되며 케이(K)-농기자재에 대한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

특히 1건(3만 달러)의 수출 업무협약과 함께 4건의 샘플 주문을 성사시켜 일본 시장 진출을 위한 물꼬를 텄다.

농식품부와 공사는 이번 일본 박람회의 성과를 동력 삼아, 올해 케이(K)-농기자재 수출 영토 확장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앞서 공사는 지난해 8개 해외 박람회에 113개 기업과 참가해 약 893만 달러 규모의 수출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올해는 일본을 시작으로 중국·도미니카(3월), 베트남(5월), 호주(8월), 사우디·베트남(10월), 튀르키예·이탈리아(11월) 등 총 9회에 걸쳐 한국관을 운영하며 중동, 남미, 오세아니아까지 수출시장을 다변화한다는 전략이다.

나주=조함천 기자 pose007@gwangnam.co.kr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본격화

중기부-전남대, 참여기업 모집

전남대학교가 정부와 함께 지역·대학기반 창업 생태계 활성화의 핵심 역할을 맡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23일까지 ‘2026년도 창업중심대학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하고 창업 생태계 활성화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지원사업은 창업지원 역량이 우수한 창업중심대학을 중심으로 대학이 보유한 기술, 인프라, 산학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해 지역기반 및 대학발 창업기업을 육성하는 사업이다. 사업은 6개 권역 창업중심대학 11곳에서 예비 창업자와 창업 기업 757개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김은지 기자

롯데백화점 광주점, 다양한 공기청정기 선봬 롯데백화점 광주점이 봄철 집 안 미세먼지 걱정을 덜어줄 다양한 공기청정기 제품을 선보인다. 소음은 줄이고 오염 물질은 실시간으로 감지해 효율적으로 공기를 정화할 뿐만 아니라 가습 및 쿨링까지 다양한 기능까지 탑재한 다양한 공기청정기 제품을 만나볼 수 있다.